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민 결 안착했다

시행 첫 한달 2,309명 신청 찾아가는 돌봄 실효성 입증 7대 서비스 등 안전망 구축

광주시가 지난 4월 1일 서비스를 시작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이 시행 한 달 만에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의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돌봄 영역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을 목표로 출

발했다.

기존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되 돌봄 특세에는 ‘광주+ (플러스) 돌봄’ 인가사·식사·동행·건강·안전·주거편의·일시보호 등 7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갑작스런 위기상황은 ‘긴급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신청은 4월 한 달간 2,309건이 접수됐으며, 3422건의 서비스가 이뤄졌다. 휴일 등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115명이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셈이다.

특히 신청자의 42.8% (988명)는 돌봄콜 (1660-2642)을 이용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전화 한 통이면 집으로 찾아가는 단일 신청 창구’의 실효성이 입증됐다. 현장방문을 통한 사례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97개 동 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담당자 323명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개별 처지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가정방문을 실시, 한 달 동안 4,734건의 현장방문 활동을 펼쳤다.

현장방문은 시민 신청 (2,309건)과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돼 신청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돌봄 사각지대 선제적 의무방문 (2,425건)으로 진행됐다.

현장방문 결과, 혼자 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데 돌봄 가족이 없고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어려워 광주다움 통합돌봄 대상으로 선정된 시민은 2,820명에 달했다.

돌봄 대상의 대부분이 노인인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장년 (417명), 청년 (29명), 아동

(35명) 등 전 생애주기에 걸쳐 다양한 시민이 서비스를 받았다.

이중 수급자나 차상위 등 기존 제도권 저소득층이 56.9% (1,478명)였으며, 기존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았던 중위소득 85% 이하 시민도 1,134명으로 집계됐다. 본인 부담으로 이용하는 시민은 58명이었다.

돌봄 지원 사례로는 기존 돌봄을 받고 있지만 특세 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시민이 51.4% (1,449명)였으며, 기존 돌봄제도를 이용한 경험 없는 돌봄 사각지대의 시민은 48.6% (1,371명)였다.

위기상황에 돌봄이 필요한 시민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돌봄콜로 신청하면 된다.

/길용현 기자

“5·18 공휴일 참여하세요” 시, 기관·학교·기업 등 요청

광주시가 5·18 지방공휴일 지정 4주년을 맞아 공공기관·학교·민간기업 등에 휴업·휴무 적극 참여를 권고했다.

광주시는 휴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별 20% 이상, 민원대응 부서는 50%까지 출근해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토록 했다.

5개 자치구도 근무인원을 조정, 지방공휴일에 참여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민간기업들이 휴무에 동참할 수 있도록 광주상공회의소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박용수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7일 “5·18 지방공휴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닌 5·18을 기념하고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날”이라며 “지역사회가 적극 동참해 5·18 지방공휴일의 취지에 맞게 사적지 방문, 각종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모두가 한뜻으로 5·18 의미를 되새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광주천 ‘뽕뽕다리’ 48년 만에 재개통

방직공장 애환... 11일 개통식

1960년대 방직산업 호황기 광주 서구 양동 발산마을과 북구 임동 방직공장을 잇던 이른바 ‘뽕뽕다리’가 48년 만에 재개통한다.

7일 광주시와 서구에 따르면 오는 11일 오후 양3동 발산마을 앞에서 ‘뽕뽕다리’ 개통식을 갖는다. 교량의 명칭은 ‘발산 뽕뽕다리’다. 길이 65m·폭 5m의 인도교로 2021년 6월 착공, 지난달 공사를 모두 마쳤다. 공사에는 광주시·서구·북구 등의 예산 29억원이 소요됐다.

공사 주체인 서구는 옛 뽕뽕다리의 모습을 현 시점에 적합한 형태로 재현했다. 특히 광주천에 비친 교량의 모습이 과거 뽕뽕다리를 연상할 수 있도록 했다. 캐노피와 전망대·야간 조명시설도 설치했다.

1960년대 방직산업이 호황을 이루던 시절 북구 임동에 위치한 방직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여공들이 모여들었다.

공장기숙사로는 직원들의 수용이 어려워져 자 상당수 여공은 밤낮이 저렴한 광주천 건너 발산마을로 찾아들었다. 이들은 방직공장 출·퇴근을 위해 뽕뽕다리를 이용했다.

당시 뽕뽕다리는 공사장 안전발판으로 쓰이는 구멍 뚫린 철판을 엮어서 만든 임시 교량이었다. 구멍 뚫린 철판으로 만들었다고 해 시민들은 임시교량을 뽕뽕다리로 불렀다.

1973년 뽕뽕다리 인근에 발산교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그 쓰임새는 차츰 줄었다. 그마저도 1975년 홍수에 떠내려가는 운명을 맞았다.

서구는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역사 문화 자원 발굴과 함께 대표적 도시재생 사례로 거듭난 청춘 발산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뽕뽕다리의 재건업을 추진했다.

/길용현 기자



어린이날 공연 함께한 강기정 시장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5일 오전 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제101회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해 어린이들과 함께 마술 풍선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지적도-현실경계 불일치 조정절차 간소화”

여수·해남서 전국 첫 시범사업 도, 국토부에 법령 개정 등 건의

전남도는 7일 “현실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 경계선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정리·조정하는 ‘불규칙한 형태의 토지경계 조정 시범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수와 해남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복잡한 절차없이 토지 소유자 간 동의에 따라 경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각종 인·허가, 측량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고

토지경계 조정을 통해 재산권 행사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불규칙하게 등록된 지적도 경계선이 현실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경계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를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어 간편한 절차에 따라 정리한다.

현재 토지경계를 바로잡기 위해선 소면적 분할 후 소유권 이전절차를 거쳐 원래 토지와 합병해야 하는 7단계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 특히 타 법률에 저촉되면 분할이 불가능해 경계를 바로잡을 수 없어 불편이 컸다.

토지소유자 신청 또는 유형조사에 따라 시범

사업 대상 토지에 선정되면 토지소유자 및 연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지적현황 측량을 통해 토지경계를 결정하게 된다.

전남도는 시범사업 추진이 완료되면 법 제도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소면적 분할 제한 등으로 토지 이용과 관리에 불편이 컸던 도민을 대상으로 경계분쟁 해결과 토지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이번주 코로나 위기단계 ‘심각’ → ‘경계’로 낮춰 격리 축소 이달 내 시행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국제보건 비상사태 해제에 맞춰 정부가 국내 위기단계를 하향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번주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와 위기평가회의가 연이어 개최된다.

방역당국은 감염병 자문위에서 전문가들이 낸 의견을 수렴하고, 위기평가회의에서 WHO의 권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출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현재 ‘심각’인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로 바꾸는 1단계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하향하는 2단계 ▲코로나19 유행이 독감 수준이 되는 엔데믹 등 3단계에 걸친 일상회복 로드맵을 3월 말 발표한 바 있다.

위기단계 조정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정 발표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까지 이르러 이번 주 내, 늦어도 다음 주에 개최될 예정이다.

통상 방역의 무 해제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안건은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다루는데, 현재 한덕수 총리가 해외순방 중이며 오는 11일 귀국한다.

이에 따라 격리 축소 등 1단계 조치는 이달 내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2단계 조정은 오는 7월, 3단계 엔데믹 전환은 내년 상반기 등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공고·영입·분양·모임

· 광고국 062) 720-1016, 1017
· 팩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i1000@hanmail.net

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종합시사매거진

월간 전남매일

지방자치시대 동반자
분권시대 선도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E-mail : jnreviews@daum.net

구독문의 062) 720-1006

그린알로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NAVER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정품 화환 75,000원 재사용 화환 50,000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전남매일 연중 일자리 창출 캠페인

**여러분의 취업성공,
활기찬 경제도시
남구가 함께합니다**

남구 일자리박람회 607-2672
취업상담 및 알선 607-2675
남구 공공일자리 607-2673

남구 취업지원센터